



따뜻한 연말연시는 화목한 이들과처럼

한

충 바빠지는 업무와 송년회를 빙자한 갖은 술 자리로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한해를 정리하기는커녕, 회식 자리에서는 언제 일어셔야 할지 눈치를 봐야하고 가족들에게도 원망 어린 눈초리를 받기 일쑤. 이러한 연말이 고역스럽다면 차라리 가족을 오픈하고 포섭해 보는 전략은 어떨까.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슈프트정보통신의 기술지원팀은 거대한 가족공동체다. 일 년에 두세 번은 가족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주말에도 짬짬이 가족 나들이를 계획한다.

“상다리 휘어지는 집들이는 기본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팀원들이 빠짐없이 집들을 했고 그에 자극을 받았는지 희한하게 저희 팀에 들어오는 남자직원들은 다들 장가를 가더군요. 결혼 못한 벤처인 있으면 여기로 다 보내 주십시오.”

시원스런 통솔력으로 기술지원팀을 이끄는 문상록 팀장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회사의 대소사를 한 가족처럼 아우르는 데 앞장선다. 때문에 이들 팀은 회사 내 부족을 형성한 모습으로, 저마다 개성이 강한 개인을 하나로 융화시켜 능력을 배가시킨다.

기술지원팀의 업무는 주로 기술지원과 교육지원으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다.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맡은 바 임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외에는 왕도가 없다. 하여 문상록 팀장을 선봉으로 이 팀은 두 가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한 달에 한번은 스터디를 결성해 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지원한다. 또 멘토링 제도를 두어 대리급 선배들은 신입사원에게 일대일로 노하우를 전수할 뿐 아니라 문제점을 조언하고 지도해 주는 등 일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업무 특성상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도 기술지원팀의 팀워크가 유별난 이유는 단합을 도모하는 데 누구 하나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주로 ‘건배’로 몽꿨었는데 주량의 편차가 심해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각종 타이틀을 걸고 마음껏 승부욕을 불사할 수 있는 볼링을 채택해 팀의 사기를 돋우고 있죠.”

볼링뿐 아니라 회사 내 탁구동호회에는 팀 모두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결속력은 끈끈하다. 자신의 일에 프라이드가 강하고 팀과 가족을 하나로 아우를 줄 아는 기술지원팀의 가화만화성 전략은 2006년에도 쪽 이어질 전망이다.



▶ 화목한 기술지원팀의 다부진 새해 다짐(왼쪽부터)

- ◎ 문상록 팀장 | 내년엔 날씬한 모습으로 변신
- ◎ 정병호 대리 | 숙원사업(이)을 이뤄 저출산국의 오명을 벗어아쥬
- ◎ 조재경 과장 | 목표는 몸짱! 풀티야 기다려라~
- ◎ 장백성 과장 | 집에 일찍만 보내주면 아빠가 될 수 있겠는데
- ◎ 김윤주 사원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독서는 기본, 자격증은 필수
- ◎ 김옥희 대리 | 사 고몽치 김대리는 잊어주세요
- ◎ 김혜영 사원 | 멋진 커리어우먼을 향해 한 달에 1kg씩 살빼기
- ◎ 박경식 대리 |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이 최고
- ◎ 전은태 대리 | 둘째는 멋진 새 차에 태우고 싶어요
- ◎ 김정재 과장 | 내년엔 꼭 아빠 이름표를 달아아쥬
- ◎ 구승모 사원 | 나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그날을 위해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자원(ozmail@empal.com, 02-515-3681)★